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전 병 옥

인천대학교

한 기 순

인천대학교

이 연구는 내러티브 방식을 통해 두 명의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하여 주목한다. 두 명의 초등영재아동 사례를 통해 이들이 인식하는 행복 경험과 행복하지 않은 경험, 이들의 행복 조건, 더불어 이들이 행복 관련 부정정서를 줄이고 더 행복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므로 영재들에게서 행복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두 명의 초등영재아동은 그들이 경험하는 강한 행복 경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과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의 희열’ 그리고 ‘가족의 신뢰와 사랑, 지지’를 이야기하였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며 두 초등영재아동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마음 다스리기’,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기’를 통해 행복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행복에 있어 인지적 측면의 지원만큼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중요하며 영재아동의 정서 문제에 부모 변인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과 구분되는 것임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현장적 논의점이 탐색되었다.

주제어: 행복 경험, 내러티브 탐구, 초등영재

I. 들어가기: 행복, 정말 행복할까?

진정한 행복을 찾은 IQ 210의 천재 김웅용

천재의 화려한 삶을 산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을 떠나 8살의 나이에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천재 소년.

10살의 나이에 NASA의 연구원이 됐다. 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운 사춘기를 보냈다. 반복된 삶에 지쳐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를 받아주는 학교와 직장은 없었다. ‘실패한 천재’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그는 세상의 과도한 관심을 피해 지방으로 내려갔다. 대학에 입학한 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NASA 연구원에서 지방의 평범한 회사원이 됐다.

교신저자: 한기순(han@incheon.ac.kr)

그에게 사람들은 묻는다. "진짜 행복하냐?"고,

그는 당당하게 말한다. "현재야말로 가장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천재라는 틀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2013년 3월 5일 기사)

아이큐 210의 천재. 그 아이큐도 확실한 것이 아니란다. 더 이상 쟈 수 없었기에 그 당시 쟈 수 있는 기준 200에 10을 더해 210으로 쳤다하니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어릴 때 활약을 보고 있다면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천재, 타고났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MBC다큐스페셜 565회, 2012). 그의 어린 시절, 천재성이 너무도 뛰어났기에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의 현재의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초를 겪은 것일까? 타고난 능력을 가진 저 어린 소년의 행복에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폈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보다 마음껏 펼치지 않았을까? 일면식없는 한 천재의 삶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범재의 오지랖일까? 연구자는 그의 기사를 접하며 영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재들의 정서적인 문제, 특히 그들의 ‘행복’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재’라 하면 너무도 영특해서, 그들의 학령을 뛰어넘는 놀라운 산출물을 보자면, ‘범재’들에게 영재는 그저 부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한 개인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이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재들은 과연 행복할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행복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요인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객관적 조건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적 조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 볼 수 있다(Diener, 1984).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현재 사회에서 행복은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며 목표이고 인간의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였고, 따라서 행복에 미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서 ‘행복’을 이야기했을 때, 그 행복(그리스어 ‘eudaimonia’)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가 말한 행복은 교육을 다루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진석연, 2002).

누구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고 그렇기에 행복은 오랫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온 주제이기도 하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측정가능한 주관적 안녕감으로 대체하여 연구하였다. Diener(1984)는 행복연구에 주관적 안녕감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평가’인 긍정

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기의 많은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아래 삶의 만족도와 정서를 보다 타당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계층별, 국가별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데 주력하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행복의 조건을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설명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부 인지구조의 고유한 특질, 개인의 성격 유형과 열망, 문화차이 등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확대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 집단에 대한 행복에 관련된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등을 주제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오고 있다(박영신 외, 1998; 신미 외, 2012; 이현웅, 박윤정, 2011; 조성연 외, 2009).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영역별로 알아보면,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학업성취 등이며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지원,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방식,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있다. 사회요인으로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사회문화적 수준, 학교 및 거주지역의 안전 등이 있다(권세원, 이에현, 송인한, 2012; 김복인, 2013).

이렇듯 행복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존재하지만 영재아 집단에 대한 행복 경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영재교육이 2002년 본격 시작된 이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영재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도 영재 개개인의 행복 및 심리적 안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제까지의 영재 관련 연구들은 '영재들이 과연 행복한가'의 물음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낙관적이고 행복지수가 높아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영재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영재교육에서 학문적 성취를 준거에 둬으로서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행복은 배제되어오거나 관심 밖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기순, 김영미, 2008). 그동안 일반아동과 성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몇 편의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류형선, 2011; 박혜영, 2005; 이병임, 한기순, 김영미, 2008)가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을 행복관련 변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집단별로 또는 성별로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기에 영재들의 행복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사례나 스토리를 도출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행복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영재들의 정서, 학교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등 기타 사회-정서적인 특성 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영재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쉽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윤여홍, 1996, 2000; 윤재은, 1994; Webb, 1993) 영재아들은 매우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도 있다(Webb, Meckstroth & Tolan, 1982). 한편 임형철(1992)은 영재아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분석에서 영재

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영재는 영재교육을 받지 않는 영재들에 비해 학교 적응이 뛰어나며 영재교육을 받지 않는 영재는 평제보다 학교 적응을 더 잘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Moon(1991)은 영재아는 가족, 교사, 미래 등에서 일반아 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한다(한기순, 김영미, 2008).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재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영재아의 행복감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로 영재아의 행복감과 행복 경험에 대한 직접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영재아들의 행복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듯 영재아들은 영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학생들이나 성인과는 다른 행복 경험을 하고 그와 관련된 행복의 조건들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재아동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행복 경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영재아동들이 행복한 영재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의 영재교육이 지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영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영재들의 행복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행복한 영재와 영재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내부자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방법 중에서도 질적연구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Carr, 1986; Connelly & Clandinin, 2000; MacIntyre, 1981; Mattingly, 1991; Polkinghome, 1988).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영재아동이 경험한 행복 경험과 행복하지 않은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영재아동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영재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경험할 때 그에 대한 부정정서를 줄이기 위해 하는 노력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만남

‘행복’경험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 경험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가 생성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성격을 갖는다. Connelly와 Clandinin(2000)은 내러티브 탐구에 대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내러티브 탐구는 내부자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주장한다. 그 동안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었고 영재아동의 행복 경험 또한 개별적 특수성에 기반할 것이므로 영재들의 행복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과 스토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인연의 고리가 있는 참여자들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연구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는 모두 두 명의 초등영재아동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영재아동들이 미성년자이기에 그들의 보호자에게도 연구참여 동의를 함께 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참여자 성명은 모두 가명이며, 개인 정보와 관련된 학교, 사는 곳의 명칭 및 지명 또한 모두 알파벳 처리되었다.

준석이는 A지역 B초등학교 단위영재학급에 재학중인 6학년 남학생이다. 단위영재학급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를 보이며, 각종 수학·과학 관련 교내·외 대회를 도맡아 나가 상을 받는 준석이는 학생, 선생님들 모두가 인정하는 영재학생이다. 또한 운동을 잘하고 성실하며 외모도 준수하여 여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인기남이기도 하다. 연구자와는 지난 일년 같은 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과 교류가 있어왔으며 올해 수학 특별반에서 지도 교사와 학생으로 한 달간 수업을 가진 인연이 있다. 준석이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 과학과 관련한 독서량이 엄청 방대하며 방과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종종 읽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교내 시험에서 보통 전 과목 만점을 받거나 간혹 1-2개 정도 틀리는 데, 1문제라도 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교사에게 찾아가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정답 처리된 경우가 종종 있어 선생님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우며 알미운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준석이가 자신의 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보이고 선생님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오류를 준석이가 찾아냈을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준석이가 답임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농담처럼 오가기도 한다.

민준이는 준석이와 같은 학교 학생이며, A지역의 지역공동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6학년 남학생이다. 2013년에 치러진 A지역의 C과학고 영재교육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다. 준석이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가 최상위권인 학생이며 교. 내외 수학. 과학 관련 대회에서 다른 학생들과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높은 등급의 상을 수상하는 학생이다. 민준이는 지금껏 본인이 치렀던 시험에서 실패경험이 전무하며 지역공동영재학급 입학시험 1등, 과학고 영재학급 혼자 준비하여 합격, 교외 수학. 과학 관련 대회 출전하여 금상 이상의 최상위 성적만을 기록하고 있다. B초등학교에서 준석이와 민준이는 '균계일학'으로 표현된다. 준석이와 민준이가 꼭대기에 둘이 같이 서 있고 그 한참 밑으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민준이는 준석이와는 다르게 학교생활에 있어 그다지 성실하지는 않는 편이다. 노력보다는 '머리가 좋아서, 순발력이 뛰어나서, 재는 진짜 영재야'라는 말을 많이 듣는 학생이며, 연구자와는 준석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학년으로, 올해 수학 특별반 학생으로 만난 인연이 있다.

2. 자료 수집에서 분석까지

연구는 Clandinin과 Conelly(1990, 2000)이 제시하는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인 '이야기하기'와 '다시이야기하기'절차를 따랐다. 본 연구의 주제 및 문제의식은 두 영재학생과의 개인적 인연과 그들의 내면적 정서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 참여관찰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연구 자체가 당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면담이 될 수 있도록 방과후 다과를 겸해 일대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2주에 걸쳐 각 학생당 1시간 반씩, 4번 총 8회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학 특별반 수업이 2013년 10월 한달간 10회 있었기 때문에 10회에 걸쳐 각각의 참여관찰일지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다른 질적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동안 수집된 관찰일지 및 참여자들의 면담전사기록 및 글쓰기 자료, 필요한 경우 관련 교사 및 부모님의 면담 자료가 추가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현장 텍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 패턴, 내러티브 줄거리(threads), 긴장감(tension) 등을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찾아 자신의 과거와 현재 경험에 비추어 또는 다른 연구나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현장 텍스트를 읽고 그것으로부터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였다(염지숙, 2002).

III. 이야기하기: 행복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1. 준석이 이야기

그 언제지. 맞아요. 독서퀴즈대회던가 그때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 아니요. 제가 원해서 하는거죠. 대회가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제가 싫으면 안 해요. 그리고 독서퀴즈에 나오는 책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내용도 그렇고 다양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책을 읽는데 너무 신났어요. 그럼 전 끝까지 봐야하거든요. 엄마가 자라고 불도 끄고 뭐라고 하시죠. 근데 신경 안써요. 그 날 새벽 3시던가 4시였나(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 책 다 보고 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구요. 어찌나 뿌듯하고 기쁘던지. ... 그때의 기분은요... 말로 못해요. 내 안에서 뭔가 막 올라오는 느낌. 아, 진짜 ‘희열!!’(10/14)

제가 과학전람회 지도하면서 준석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종이에 써서 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애가 엄청 많이 목록을 써서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그 주제들이 그동안 대회에서 당선된 작품들 주제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적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 관련책을 많이 읽는데,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정리한거라고 하더라고요! 준석이가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느꼈죠. ‘애가 진짜 똑똑한 애구나. 다르다. 이런거.’ ... 겨울방학 내내 학교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보고서 쓰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솔직히 일반아이들은 방학 때 추운 학교 나와서 연구하자고 하면 좋아할 아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대회라고 해도요. 그런데 준석이는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잘해요. 스스로 계획하고 도식화하고 그날그날 해야할 분량을 소화하더라고요. 지도하면서 아이가 이해를 잘하고 자기주도적이어서 저도 참 즐겁게 대회 준비했던 거 같아요. 이후에 작품 제출하고 과학전람회 금상도 받았어요. 준석이 하는 거 보고 금상 이상은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9/24 과학전람회 준석이 담당지도 교사 인터뷰)

준석이에게 가장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기억과 경험은 내가 즐거운 일을 내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이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며 그로 인한 기쁨은 준석이로 하여금 '행복하다'라는 감정으로 돌아온다. 이때 준석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취가 '내가' 노력하여 얻은 성취라는 것이다. 그때의 감정을 준석이는 '희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저는 제가 모르는 문제는 풀지 않고 놔둬요. 그냥 틀려요. 틀려도 돼요. 내가 모르는 문제니까 틀려서 성적이 떨어져도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제가 만약 열심히 푼 문제를 틀렸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좋을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맞는다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10/16)

준석이에게 중요한 가치는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이다.

엄마는...자꾸 내 공부를 망취네요.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내 스케줄을 다 간섭하고 엄마 맘대로 한단 말이예요. 그럼 막 뒤죽박죽 되고 너무너무 짜증나요. 이번 1학기 때도 엄마가 계획하고 간섭했을때는 시험을 제가 만족할만큼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에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저 나름대로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공부했거든요. 그랬더니 올백 맞았어요. 뿌듯하더라고요. ... 엄마가 알려주게 아니구요. 제가 그냥 알아서 종이에 써서 계획 세우고 지워나가면서 계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간섭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할 의지가 있는데 왜 나를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10/21)

준석이는 엄마의 간섭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도 엄마가 자꾸 끼어들어 자신의 계획을 망쳐놓는다고 생각한다. 그 사실이 준석이로 하여금 너무도 화나게 만든다.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도 안보고, 휴대폰도 엄마가 다 압수. ... 그냥 책 읽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불만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좀 짜증났었는데 사람이 적응이 되더라니까요.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건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제가 텔레비전 안보는거 다 아니까 제 앞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자애들은 제가 개그 프로나 드라마 줄거리 이런 주제 대회가 잘 안되니 좀 답답해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애들은 거의 뭐 운동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텔레비전 안 봐도 대화도 잘 통하고 운동도 서로 잘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대체로 즐겁게 잘 지내요. ... 이런 걸로 내 인생이 불행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과제라던가 해야할 공부나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할 일을 안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혼나도 할 말 없죠. 근데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랬는데도 엄마가 간섭하고 통제하는게 진짜 이해가 안가요. 엄마가 나를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신뢰.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10/21)

준석이는 엄마의 통제와 간섭이 불만이며 그로 인해 섭섭함과 불행감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였다. 엄마가 나를 믿고 맡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엄마랑 대화하다보면 난리나요. 누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누나나 저나 누구 하나가 잘못해도 둘 다 혼나요.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죠. 때려요. 엄청. 두들겨 맞아요. 마포걸레 큰 막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때려요. 여기저기. 대들었다가는 더 맞아요. 그리고 엄청 화내시죠. ... 그래도 엄마 잦아요. 대들면 안되죠. 우리 엄마인데... 엄마랑은 대화가 안돼요. 그냥 벽.(10/21)

학원에서 끝나고 오는 시간까지 엄마가 귀신같이 계산해요. 가끔 친구들이랑 조금이라도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5분만 뛰어도 땀이 엄청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비오듯이 내려요. 그래서 억울한 게 10분만 놀고 들어갔는데도 오해를 한다니까요. 웃이 많이 젖으니깐요.(10/23)

엄마와의 심리적 갈등은 준석이로 하여금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다.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준석이는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엄마와의 갈등은 행복하지 않은 부정적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준석이는 엄마에 대한 답답함을 ‘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행복의 조건에서 높은 순위에 돈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가족이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아빠가 회사에서 나오신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실 거고 그로 인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거 같아요. ...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 깨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결국 돈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은 필요할 거 같네요. 그렇지만 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저에게 정신적인 것이 더 우선 순위인거 같아요.(10/23)

저희 아빠는 엄청 바빠요. 집에서 밤 늦게까지 노트북으로 그래프 그리고 분석자료 만들고 그러세요. 주말에는 그래서 꼭 쉬셔야 해요. 아빠는 정말 쉬셔야 한대구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시지 걱정돼요 ... 아빠랑은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죠. 주말에는 시간 나실 때 저랑 도서관에도 같이 가주시고 가족이 다같이 탁구치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빠가 바쁘시지만 않으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세요.(10/14)

준석이에게 가족은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우선 순위이다. 그 가족의 핵심구성원인 엄마와의 갈등은 준석이에게 정신적으로 피로하며 힘든 일이다. 엄마의 나에 대한 믿음과 지지는 준석이의 삶과 행복을 위해 너무도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준석이와 엄마와의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글세요. 현재 제가 완전히 행복하다고도 아니면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그런데...그냥...음...반반. ...

정말 반반이요.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엄마랑 부딪힐 때 그때는 정말 안 행복하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랑 제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좋을 때 무척 행복하고요. ... 우울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때 저만의 노력은요. 운동해요.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운동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검도, 탁구, 배드민턴도 치고요. 탁구는 제가 먼저 시작했다가 주말에 가족들 시간이 맞으면 다 같이 탁구치고 했거든요. 탁구 좋아해요. 또...진짜 답답할 때는 미친듯이 뛰어요. 그렇게 뛰고 나면 땀이 막 나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구요. 그리고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있죠. 그런거 만들고 주먹으로 탕~ 부셔요. 제가 모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만들고 부수고...다른건 건들게 없잖아요. 그러고나면 좀 풀리죠. 아! 그리고 책 읽어요. 책~ 왜 교훈이나 뭐 배울 점 있는거 또는 명언 그런거 있죠? 그런 책. 그런거 읽고나면 좀 마음이 차분해진다거나 할까. 그리고 제가 원래 낮잠을 거의 안자거든요. 근데 엄마랑 한바탕 하고 나면 몸이 반응을 하는건지 잠이 와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자버려요. 자면 뭐라고 못하잖아요.(10/23)

‘행복하니?’란 질문은 준석이에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엄마와의 갈등은 준석이로 하여금 행복에 대한 부정정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준석이에겐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나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즐겨하는 활동과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행복지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2. 민준이 이야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은 이번에 과학고 영재교육원 시험에 저 혼자 공부해서 합격한거요. 제가 원해서 본 시험인데요. 엄마는 그냥 항상 알아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얘기하죠. 항상 결정은 제가 해요 ... 다른 아이들은 거의 다 시험대비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안다니고 저 혼자 공부했어요. 지금 다니는 수학학원은 그런거 전혀 준비 안해줘요. 엄마가 저도 시험대비학원 다녀보라고 했는데요. 제가 싫다고 했어요. 으~ 싫어요. 엄마는 제가 싫다고 하면 그냥 들어줘요. ...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시험대비수학문제집 추천 받아서 그거 한권 풀었어요. 저 혼자 힘으로 문제집 문제 빠짐없이 2번 풀었어요. 과학은 과학관련 책 많이 읽었구요. 평소에도 수학·과학 관련된 책 많이 읽으니까 ... 수학은 어렵지 않게 시험에서 풀었구요. 과학은 조금 어렵더라구요. 근데 뭐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내용이니까...제가 어려우면 다른 아이들도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 보지는 않았나봐요.(흐흐) ... 행복하죠!! 완전~ 말로 못해요. 아~ 그 희열, 짱 좋음, 대박~~ 하하(웃음)(10/15)

진짜 고민 많이 한 문제는 한 열흘 정도 걸렸나봐요. 열흘 정도 고민하고 공공 대다가 결국은 풀었죠. (두 손을 번쩍 올리며) 진짜 행복해요. 정말...기분 정말 좋죠.(10/15)

민준이는 본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으로 스스로 공부해서 과학고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일이라고 얘기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성취에 대한 기쁨을 희열, 짱 좋음, 대박~ 이라는 격한 단어로 표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학교생활도 만족해요. 좋아요. 근데 음...영재학급 수업이 낫죠. 수업 내용도 그렇고...친구들이랑 생활하는 것도 그렇구요. (일반학급)친구들이랑도 즐겁게 잘 지내고 사이도 좋긴 한데요. 그게 좀 지내다보면 한계가 있던 말이에요. 암튼 있어요. 그 지내다보면 대화하다 보면 한계가 딱~ 영재학급 친구들이 수업하거나 생활면에서도 더 대화가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재학급 수업이 좀더 좋긴해요. 그리고 영재학급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영재학급 수업이 더 좋은 거 같아요. 학교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것도 다 듣고 해야하니까...하기 싫어도 해야하잖아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재미있어요~ 엄청!! ... 지금 영재학급(지역공동) 수업 수준은 별로 높지는 않은 거 같아요.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잘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요. ... 네, 내년 과학고 영재교육원 무척 기대돼요. 재미있을 거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싶어요.(10/15)

민준이는 일반학급에서보다는 영재학급에서의 생활과 수업에 더 높은 만족감과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민준이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다.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죠~ 왜냐하면 즐겁고 별로 불만도 없는데...진짜 즐겁고 슬픈 일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 음...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내가 갈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 제가 하고 싶은 건 수학이요. 나중에 훌륭한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선 가까운 목표로는 과학고 영재교육원에 합격은 했으니까 그거 열심히 다니고요. 고등학교는 과학고에 진학해서 서울대 수학과 들어가고 싶어요. ... 이왕이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잖아요. 헤헤(웃음)(10/17)

민준이는 본인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은 편인 거 같아요. 엄마. 아빠랑 대화도 많이 하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은 다 맛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빠 모두 저한테 강요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선택권은 저에게 줘요. 엄마가 대회나 좋은 학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엄마가 여기저기 뭐 정보가 있으면 알아보고 나서 저한테 “해볼래?” 하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솔깃하면 하는 거구 싫으면 안해요.(10/17)

민준이가 너무 학교 공부를 안해서 걱정이예요.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를 해야하는데 너무 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다 머릿속에 이미 있대요. 학교 시험은 쉬워서 공부 안해도 된다고 해요. 학교 수업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는 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고요. 시험 때는 제가 항상 잔소리하는데, 시험 결과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해요.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구...어릴 때부터 남다른 거 했어요. 세 살때 이미 한글도 다 뗐구요. 책도 무지 많이 읽고 학습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구요. ... 지금 학원 2개만 다니고 있는데...그것도 본인이 다니겠다고 해서 다니는 거예요.(10/10 민준이 어머니 인터뷰)

외동아들이인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학습습득력이 엄청 빨라 두각을 보였기 때문에 민준이 부모님은 아들의 능력을 잘 뒷받침해 주고자 노력한다.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고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잘 성장시키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엄마랑 싸우는 경우는 단 한 경우예요.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엄마가 그때는 엄청 무서워요. 근데 모 제가 대부분 잘못된 경우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혼나거나 엄마랑 부딪힌다고 기분 나쁘거나 불행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 평소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하고싶은대로 하는데, 시험때는 엄마가 거실에서 공부하는 거 지켜보시죠. 별로 신경 안써요. 저야 제 공부하는데 뭘 상관이에요. 그냥 제 할 일 하면 돼요. 전혀~ 스트레스 안받는데요.(10/24)

아빠가 과학고 영재교육원 시험 혼자 공부한다고 했으니깐 니가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면 가족 다 같이 유럽여행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때 연휴가 길었잖아요. 열흘 정도 프랑스 다녀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가족이랑 같이 가셔도 좋았고...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 노력으로 이루고 받은 상이잖아요. ... 책속에서 보았던 풍경이나 건물들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동기부여도 되구요. 여행은 정말 행복해요. 내가 알던 지식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10/21)

민준이는 확실히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자신을 존중해주며 지지해준다고 말한다. 민준이는 친구관계보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여기며 자신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민준이는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정말 매일매일 행복해서 별로 '행복하지않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거 같아요. ... 별로 실패 경험은 없는거 같은데요. 제가 노력해서 본 시험이나 대회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지난번 대회에서 로켓 발사 못한건, 제 잘못이 아니라 기계결함이었으니깐 좀 속상하긴 했지만 괜찮아요. 다음 대회에서 잘하면 되죠 뭐. ... 과학고 영재교육원에서 적응은 별로 걱정 안하는데요. 열심히 하면 되죠. 못 쫓아가면 더 해야죠. 제가 부족한거니까. 뭘 때까지 해봐야죠. 그러다보면 좋은 결과 있겠죠. 항상 더더 노력하면 되던데...별로 걱정 안해요. 걱정보다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어떤 공부를 하게 될 까...기대감이 더 커요. 중학교 입학하는 학교보다 사실 과학고 영재교육원 입학이 더 기대돼요.(10/24)

기분이 안좋거나 우울감이 들 때가 별로 없긴 하지만...있죠. 나름의 극복방법이. 운동이요. 농구. 영재학급 친구들이랑 농구교실 수업 듣거든요. 5명 정도 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농구 배우고 경기해요. 재미있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요. 주로 농구하고요. 음악감상이랑 여행이요. 음악 듣거나 여행하는게 많은 도움이 되죠.(10/21)

민준이는 자신이 그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적이 거의 없다. 언제나 본인은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계속되는 성공경험(노력에 의한 성취)이 민준이로 하여금 자신감과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며 또한 민준이는 지속적인 여가활동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배출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IV. 다시 이야기하기: 행복 경험의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1. 행복의 조건

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내 갈 길을 가다.

준석이와 민준이 모두 행복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라는 대답이었다.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눈을 반짝이며 몰입하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준석이와 민준이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불과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교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고학년 아이들에게조차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대답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은 “몰라요.”“없어요.”가 대답이다. 그러나 준석이는 ‘과학’, 민준이는 ‘수학’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며 스스로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몰입하며 즐겁게 빠져드는 것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양의 학습량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일 경우에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였다.

평일에는 저녁에 3시간 정도 3회 수학, 과학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지역공동영재학급 수업, 그리고 가끔 대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토요일 같은 때에 나가요. ... 아니요. 전혀요. 안 힘들어요. 괜찮은데...재밌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건데요 월.(10/15 민준 인터뷰)

저는 주로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못 만지니까 할 게 없잖아요. 주로 책 읽어요. 과학책이요. 과학 관련.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찾아서 보기도 하구요. 읽었던 것 여러번 또 읽기도 하구요. ...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 다시 보면 또 새롭고 재미있던데요. 그리고 만들기...조립하고 뭔가 완성해나가는거 좋아하거든요. 레고도 좋아하고요. 과학상자나 이런 것들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제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과학쪽 관련해서 일하고 싶구요. 어릴 때는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기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과학고도 들어가고 싶는데 되야 말이지요. 노력해 봐야죠.(10/14 준석 인터뷰)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할 때의 경험을 강한 행복 경험으로 꼽았다. 특히 민준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차근차근 나아가는’것을 자신이 행복한 이유로 이야기하였으며, 준석이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분야의 활동들을

하며 성취와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의 희열

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두 영재학생에게겐 짜릿한 행복 경험이다. 준석이에겐 스스로 공부계획을 짜고 노력하여 '올백을 맞은 일'이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한 행복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다. 준석이에게 학교성적은 그다 행복을 좌우할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준석이 힘으로 노력하여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이 큰 기쁨일 뿐이다. 준석이는 '내 힘과 노력'으로라는 말을 면담 중 많이 사용하였다. 준석이에게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복의 경험인 것이다. 그것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시험까지 준석이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일이다.

민준이에게도 '내 스스로 해내는 성취'는 강한 행복 경험이다. 혼자 준비하여 자신의 힘으로 과학고 영재교육원시험에 합격한 것은 민준이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안겨주었고 시험이 끝난 지금도 그 행복감이 너무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학원까지 다니며 준비하던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떨어졌는데, 혼자 공부한 자신이 합격한 사실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 너무도 행복하다고 면담 중 말하였다.

준석이와 민준이 모두 우수한 영재아동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다른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며 힌트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준석: 선생님 힌트 주지 마세요. 스스로 풀어야 실력이 늘지...

민준: ~ 제가 알아서 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풀어야 기억에 남죠. 알려주지 마세요. ...

조금만요. 조금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10/8 참여관찰일지)

민준이는 항상 제일 먼저 와서 교실 밖을 서성인다. 지도교사는 부랴부랴 교실을 정리하고 들어오라 이야기한다. 민준이는 항상 칠판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자리해서 문제에 집중한다. ... 준석이 또한 청소가 없는 날은 항상 늦지 않게 도착하며 민준이 뒷자리에 앉아 문제지에 집중한다.(10/29 참여관찰일지)

지도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여 문제의 정답을 맞추고 그 과정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다른 학생들은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으나 유독 준석이와 민준이는 들뜬 표정이다. ...준석이와 민준이는 주어진 문제풀이 시간이 끝나자 자기들이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토론 수업을 이끌었다. 특히 민준이는 이 과정에서 뛰어난 직관력과 논리적 사고가 돋보인다. 곧잘 준석이와 민준이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친구들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준석이와 민준이는 평균적으로 10문제 중 8문제를 해결하며 해결한 문제는 거의 정답에 가까우나 나머지 학생들은 3~5문제 정도를 해결할 뿐이며 정답률도 50% 안팎이다.(10/29 참여관찰일지)

두 학생 모두 스스로 해내는 것의 기쁨을 행복의 강한 경험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면담 중 그 경험을 ‘희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기쁨’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다. ‘행복함’과 ‘행복하지 않음’에서의 가족의 신뢰

두 영재학생 모두 가족의 존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반 아동처럼 또래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과 의미 부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준석이와 민준이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우선 순위에서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음...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놀고..같이 생활하고. 연락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냥 학교 오면 같이 즐겁게 지내고 하는거지. 친구들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에게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요. 가족이랑 사이가 좋아야 더 행복하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런게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슬플거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우리집은 화목하고 엄마,아빠랑 대화도 잘 통하고 제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시니까 전 정말 불만 없어요. 행복한데~(10/24 민준 인터뷰)

그 전날 엄마가 엄청 누나랑 저를 혼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서로 대화로 얘기하면 좋는데 엄마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화내고 화가 풀려야해요. 그때까지 누나랑 저는 혼나는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 다음날 사실 별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요.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기분이 우울하긴 했죠. 그치만...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나왔는데 건다보니까 학교를 지나쳐 행복공원까지 걸 어갔더라고요. 핸드폰이 꺼져있었는데 한 시간인가 지나고 쾰보니, 담임쌤이랑 엄마 전화가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11/6 준석 추가인터뷰)

민준이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며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모님께 감사하다. 지난번 과학고 영재교육원 시험 합격 후, 아빠께서 약속했던 유럽여행을 가족이 함께 한 추억은 민준이에게 너무나 행복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여 쟁취하고 그것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 의견을 존중해준 엄마, 아빠께 감사하며 자신의 행복에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에 반해 준석이는 나를 믿지 못하는 엄마로 인해 종종 슬퍼진다. ‘나의 공부 계획을 망친다’ ‘대화가 안 통한다’ ‘간섭하고 통제한다’ 라는 말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면담 내내 많은 시간 이야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성취에 대해 얘기할 때의 열정적인 대화 참여 모습에서 엄마의 이야기로 옮겨갈 때에는 얼굴이 다소 어두워졌고 말을 아꼈다. 준석이는 엄마의 이런 ‘간섭과 통제’의 행동에 대해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준석이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엄마의 ‘믿음’과 ‘신뢰’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준석이는 바쁜 아빠를 이해하며 아빠는 자신의 대화를 들어주고 믿어준다고 하였다. 다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야하는 엄마와의 잦은 충돌과 엄마의 이해할 수 없는 양육태도에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며 그 때 불행감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두 영재학생 모두 가족의 사랑과 지지, 신뢰를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 한 학생은 '행복'을 다른 학생은 '행복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2.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마음 다스리기

어떤 사람이든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매일매일 불행한 사람도 없다. 즐거운 순간, 순간이 쌓여...행복이 되고...우울하고 슬픈 순간이 많아지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하지 않음으로 느껴지게 될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가를 판단할 때 순간적인 기쁨과 고통을 합하는 심리적 계산을 하며, 따라서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한다(Diener, 1991).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순간과 경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실천노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준석이와 민준이도 행복해지기 위한 그들만의 노력이 있었다. 둘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노력은 '운동'이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건전하게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있었다.

운동을 하면 암 생각이 없어져요.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농구는 같이 하는 운동이니까 서로 작전 짜고 기술 익히고 뛰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매주 농구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그리고 음악감상 좋아하거든요. 휴대폰에서 쉽게 음악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학교 오가며 듣기도 하고요. 음악 듣다보면 기분도 좋아져요.(10/24 민준인터뷰)

아무 생각없이 뛰다보면요. 어느새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제가 좀 땀이 많기도 한데, 땀흘리고 나서 씻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보니깐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제가 좋아해서 또 좋고...(10/23 준석인터뷰)

이외에도 '교훈을 주는 책 읽기' '만들고 부수기' '낮잠 자기' '음악 듣기' 등 다양한 좋아하는 활동들로 행복하지 않은 부정적 정서에서 빨리 벗어나 행복해지고자 노력하는 그들만의 실천 방법이 있었다.

나.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기

준석이와 민준이는 내가 노력한 일이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과 부정적 정서 극복을 위해 '하고 또 하기'를 이야기하였다. 될 때까지 해보면 언젠가는 이를 수 있다는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며 자신들에게 시험이나 대회의 결

과, 그것은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행복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준석이는 금년도 상위영재교육기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본인도 섭섭하고 아쉽기는 했지만 그것이 불행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엄마가 합격한 친구와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짜증날 뿐이지 자신은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았기에 괜찮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보다 다른 아이가 시험을 더 잘 봤나보죠. 전 별로 어렵게 안 풀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풀고 나왔는데, 결과가 안 좋았으니 제가 부족한가 봐요. 모르겠어요. 왜 떨어졌는지. 그건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거니까...저도 들어가서 공부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또 노력해 봐야죠.(10/21 준석 인터뷰)

안 풀리는 문제는 계속 풀어요. 풀릴 때까지...그럼 언젠가 풀리겠죠.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하면 되죠. 내가 부족한 부분...계속 노력해야죠. 사실 만약 미래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못 쫓아가거나 어려우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네요.(10/24 민준 인터뷰)

준석이와 민준이 모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기’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V.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한 교육적 논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모호하며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의 행복 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척도나 설문지 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춰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각 초등영재학생 개인의 행복 경험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였다.

두 초등영재학생의 행복 경험에 대한 이야기와 탐색한 그 경험의 의미를 토대로 초등영재학생의 행복 정서에 대해 교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 행복의 가치를 높게 두고 있으며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있어, 영재는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경향이 있고 교사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오해(Parker, 1989)가 있어 왔으나 영재는 자신감이 높고 독립심이 강하며, 내적 통제력이 높아 실패를 건설적으로 활용하여 실수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며, 자아개념 및 자기 통제력이 높다(송인섭, 2001; 전경원, 2000). 또한 신현숙(2003)의 연구에서도 영재들은 탁월한 지적능력뿐 아니라 도덕의식이 높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며 자아존감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영재아동의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정서지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박영희(2008)

의 초등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경험으로 절반 가까운 학생이 '가정의 화목'을 언급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여가 생활 만족', '개인적인 성취', '인간 관계'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초등영재아동에 따르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경험으로 준석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 노력으로 얻은 성취', '부모님의 신뢰. 나를 믿고 맡겨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민준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갈 길을 착실히 가는 것', '내 노력으로 얻은 성취',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를 그들이 경험한 가장 강한 행복 경험으로 대답하였다. 준석이는 면담에서 자신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했으며 민준이 또한 다른 여러 행복의 요소들이 있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노력으로 해내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연구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그로 인해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Deci와 Ryan(2000)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구분은 행복과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간의 행복을 목표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추구하는 목표가 인간의 내적 동기와 잘 부합할 때 행복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현정수, 2011).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은 '동기'와 '과정'이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의 나에 대한 지지와 격려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들의 성숙한 가치관과 내적 태도를 간과한다면, 사춘기를 지나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둘째, 초등영재학생의 행복한 삶과 영재아로서의 바른 성장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아동의 가장 가까운 환경이자 지붕은 가정인데 초등영재아동에게도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와 위로가 되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영재아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다. 준석이는 '간섭과 통제'로 일관되어 대화가 불가능한 엄마의 태도에 불행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것을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하며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내게 맡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한다. 준석이에게 엄마는 커다란 벽이며 장애물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엄마이기에 엄마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다. 언제나 '고개숙임'과 '침묵'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뿐이다.

반면에, 민준이의 가정에서 엄마는 민준이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보장한다.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엄마가 교육열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민준이의 부모님은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줄 뿐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책임질 것을 강조한다. 민준이는 부모님의 이러한 교육관 덕분에 가정에서 자신이 존중되고 있다고 믿으며 사랑과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부모님의 양육태도는 민준이로 하여금 언제나 '행복하다'란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민준이는 면담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취를 하고 내 갈 길을 가니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영재아들은 교우관계보다도 가족의 화목과 가족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부여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초등학교생이라는 숫자에 매여 어리게만 보고 통제하려고만 들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특성에 따른 세심한 부모의 지도와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이미 스스로 계획하고 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아이에게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치명적인 양육태도이다.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부모가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 간에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어느 부모나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꿈꾼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가 행복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아이만의 특성을 이해하여 영재아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영재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적절한 양육태도와 보살핌이 절실하다.

셋째, 초등영재학생의 행복 정서 함양을 위해 영재교육내 다양한 상담 및 정서프로그램의 투입이 필요하다. 2002년 영재교육 시행 이후, 영재교육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적프로그램과 정서프로그램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영재교육 시스템 및 재정적인 문제로 정서프로그램 및 상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거나 미미하게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 28, 법률 제6215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영재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영재아동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행복한 영재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며 행복하고 지혜롭게 자란 영재아동은 미래의 우리 사회에 훌륭한 인재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일반학급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살피듯이 영재아동에게도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및 정서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영재아동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영재아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영재교육내에서의 교육적 처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영재아동의 부모를 위한 영재교육내 상담 및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영재아동의 부모에게 내 아이가 영재아동인 것은 한편으로는 ‘기쁨’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일 수 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하는 교육적 고민과 양육태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영재아동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한 교육지원과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의 확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아동의 정서 문제(지능)에 부모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교육 및 성장에 부모의 개입이 크고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상 아이의 지적·정서적 성장에 부모변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영재아동의 부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영재아동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영재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재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변인에 대한 다양한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VI. 나오며

행복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며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내러티브 탐구를 실행하였다.

첫째,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고 둘째, 당사자의 관점에서 두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과 그 의미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질적 연구에서 내는 목소리들은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든다(정광순, 2006)

목소리는 ... 개인에게 내재하는 그리고 그 개인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이다. ...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은 누군가에게 한 개인이 의미를 전달하고 시도할 때 시작되며 단어들을 찾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은 이 과정의 일부분이다.(Britzman, 1991: 23)

이 연구를 통해서 초등영재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행복 경험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목소리가 내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의 일부는 독자의 몫이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들의 가치관과 환경,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영재아’라는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들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정서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행복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남녀 성별과 학령별 차이를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해 성별과 학령 차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통해 영재 아동의 행복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복인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 (1998). 건강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건강심리학회 소심포지움 :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pp. 175.
-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박영희 (2008). **초등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05). **영재반 학생과 평재반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지수, 낙관성, 감성지**

- 수에 관한 비교 연구: 중학교 과학영재반과 수학영재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보훈, 윤선아 (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 103-134.
- 송인섭 (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 송창용, 손유미 (2013).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10, 195-215.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 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 생활 적응 간의 관계 분석. **한국아동학회**, 33(1), 81-92.
- 신현숙 (2003). **영재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완벽주의 성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지숙 (2002).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이병입, 류형선 (2011).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른 행복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0(3), 117-132.
- 이은희 (2013).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과 창의적 성향 비교**.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웅, 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8(7), 59-83.
- 윤여홍 (1996). 영재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 정신건강을 위한 지도. **영재교육연구**, 6, 53-71.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 일반**, 19, 79-101.
- 윤재은 (1994). **영재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및 그 대처 방법: 특수목적고교와 인문고교의 비교**.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형철 (1992). **영재아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원 (2000).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전미란 (2013).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색. **영재교육연구**, 23(1), 25-47.
- 정광순 (2006). 초등학생의 유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9(2), 117-139.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한국아동학회**, 30(2), 129-144.
- 주정훈 (2010). ‘즐거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3(3), 71-102.
- 진석인 (2002). “당신의 자녀는 행복합니까?": 영재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재검토. **한**

국영재학회.

- 한기순, 김영미 (2008). 영재들은 행복한가?: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비교. *영재교육연구*, 18(3). 519-542.
- 현정수 (2011). *청소년 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재구성*과 척도 개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itzman, D. P. (1991). *Practice makes practice : A critical study of learning to teach*.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arr, D. (1986). *Time, narrative,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542-575
- Diener, E., Sandvik, E. & Pavot, W. (1991):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119-139). Oxford: Pergamon Pres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ttingly, C. (1991). *Narrative reflection on practical actions: Two learning experiments in reflective storytelling*. Schon, D. ed. *The reflective turn*(pp. 235-257).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Moon, J. (1991). Korean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s attitude toward family, teacher, friend and self as seen through sentence completion test. *Paper presented at the 9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Hague, August, 1991.
- Parker, J. G., & Asher, S. R. (1989).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Columbus, OH: Chio Psychology Publishing Company.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and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for Research on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Oxford: Pergamon Press.

= Abstract =

Narrative Inquiry into Happiness of Two Elementary Gifted Students

Byungok Ju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isoon 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narrative inquiry is to explore two gifted elementary students' 'happiness experience'. They narrated that they experienced strong happiness at the moment 'doing something they really like for themselves', 'trying and achieving in self-directed way', and 'feeling trust, love, and support from their family'. Also happiness was the results of their effort. They made an effort to reduce their negative emotion against happiness by 'controlling their feeling doing something their favorite activities' and 'working again and again until they succe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as well as help in the cognitive aspects is important. Especially, parents variable wa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m to have happiness experience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show that overgovernment and excessive intervention from parent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good caring' of their child.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study was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Happiness, Narrative Inquiry, Elementary Gifted Students

1차 원고접수: 2014년 5월 25일
수정원고접수: 2014년 6월 22일
최종게재결정: 2014년 6월 22일